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하면 답례품 혜택 ‘푸짐’

영산강축제서 고향사랑기부 홍보·이벤트 진행



2026 나주영산강축제 고향사랑부스에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조성된 영산강정원에서 지난 7일부터 ‘2026 나주영산강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축제장 입구쪽에 마련된 고향사랑기부 부스에서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혜택과 답례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축제기간동안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할 경우 나주사랑상품권 또는 천연염색 키링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에 참여하면 키캡 키링과 나주배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다.

나주시는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부 혜택과 답례품을 직접 안내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나주사랑상품권과 천연염색 키링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혜택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재정 확충과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성택 기자

담양, 딸기 온실 디지털 복제공간 구축

화순, 고인돌가을꽃축제 맞이 기부 이벤트

담양군(군수 박종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경권연구본부(본부장 변우진) 모빌리티 인공지능(AI)융합연구실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딸기 첨단온실을 실제와 유사한 3차원 가상환경으로 구현한 디지털 복제공간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에 구축한 디지털 복제공간은 첨단온실의 로봇동과 다단동, 행 이동, 복도 등 주요 공간을 영상과 3차원 라이더(LiDAR) 스캔 자료를 활용해 실제 온실의 구조와 로봇 이동공간을 정밀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농업로봇을 실제 온실에 투입하기 전에 가상공간에서 이동경로와 자율주행, 농작업 과정 등을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은 10월 16일 개막하는 ‘2026년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가을꽃축제’를 맞아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화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2만 원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200명에게는 화순팍 1만 원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상자에게는 11월 초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NH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된다. 최현진 화순군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이벤트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기업 법률분쟁 예방 실무 특강 개최

계약서 작성부터 채권 회수까지, 기업 실무 중심 교육 진행



영광군 법무·법률 실무 특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등 금전채권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 절차와 가압류·가처분을 통한 권리 보전, 판결 이후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 과정까지 단계별로 설명해 기업 재직자들의 실무 이해를 높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특강이 관내 기업들이 각종 법률 리스크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오는 10월 29일 영광문화원 1층에서 「영광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관내 약 20개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관내 기업은 영광군 인구일자리과(☎350-46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최고의 황룡강 가을꽃축제 선사”

꽃정원·공연·체험 풍성...방문객 맞이 준비 총력

장성군이 지역 대표 축제인 ‘2026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앞두고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선사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축제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열리며, 황룡강변을 따라 조성된 정원에서 백일홍과 코스모스 등 다채로운 가을꽃을 감상할 수 있다.

주제정원과 참여정원 등 곳곳에 특색 있는 꽃과 조형물을 배치해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선보인다.

축제 기간에는 제이(J)-라이트런과 어반지카파, 가비엔제이, YB 등이 출연하는 ‘안녕, 가을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장성군은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주차, 현장 관리 등 운영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은 황룡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김한중 군수가 축제장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가을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황룡강의 자연경관과 가을 꽃이 어우러져 가족 단위 관광객과 나들이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장 곳곳에는 방문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휴식 공간도 마련된다. 장성군은 행사장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점검을 통해 누구나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황룡강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